

2024년 겨울 통권 제98호 (속간 제38호) | 2024년 12월 1일 발행 | 계간지 | 성서와 문화 (2000년 창간 / 2015년 속간) | 비매품

성서와 문화

겨울
2024



한국의 4계

계방산 운두령

Bible & Culture

세계적인 식량위기, 준비되어 있나?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서양이 대규모 허리케인을 일으켜 북미대륙을 강타하고 있으며 태평양의 엘니뇨 현상으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전례 없는 홍수와 가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식량 생산을 어렵게 하여 80억 명으로 치달고 있는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농업기구(FAO)의 통계에 의하면 약 10억 명이 기아선상에서 배고픈 밤을 보내고 있으며, 매년 6백만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고 한다. 식량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해 끼니를 거르며 영양결핍을 겪고 있는 인구가 24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삶의 터전을 잃은 기아 난민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유럽으로, 중남미에서는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세계의 식량위기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만성적인 식량부족 지역: 장기간 가뭄과 사막화 등 자연재해로 식량이 부족하나 가난하여 국민 대부분이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나라들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과 서남아시아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나라는 유엔 차원에서 FAO 등이 식량 생산 시스템의 개선, 지하수 개발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② 전쟁 등 분쟁지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 악화, 아이티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란, 미얀마의 내란 등으로 식량 생산이 중단되고 주민들이 난민으로 전락한 지역이 많아지고 있으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인도적 국제 구호기관들이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③ 선진국 저소득층의 식량부족: 전체적으로는 부유한 국가지만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저소득층이 식량위기 사태로 내몰리는 경우가 미국과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푸드스탬프(SNAP) 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 식량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 반액할인 지원이나 일부 자선단체에서 하는 무료급식 봉사가 있으나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④ 잠재적 식량안보 취약국: 부족한 식량을 수입할 능력이 있으나 식량자급률이 낮아 기상이변이나 금융대란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국제분쟁에 휘말려 식량을 수입할 수 없을 경우에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될 나라들로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예이다. 요즘같이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시대에 가장 위험한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대해 두 나라가 대처하는 자세에서 큰 차이를 보여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년 전부터 한국을 식량안보가 가장 취약한 회원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현재 20%로 무역자유화가 시작된 1995년의 자급률 30%에서 10%나 하락하였다. 반면 일본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5년의 곡물자급률 29%에서 현재 30%에 머물러있다. 한국 정부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수입곡물을 제외한 식용곡물 자급률 45%를 식량자급률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쓰지 않는 식량자급률이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국민이 실상을 보지 못하면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해외농장 개발과 해외 곡물저장 창고사업을 줄기차게 지원하여 유사시 해외 곡물을 스스로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식량자주율이 100%를 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과 식량자주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공공비축미를 FAO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연간 수요량의 18%(80만 톤)를 비축하고 있다. 이 양은 곡물을 수송하는 화물선이 한반도에 접근할 수 없는 유사시에 우리 국민이 2개월 생존할 수 있는 식량이다. 아무리 국방력이 강해도 식량이 없어 더 견디지 못하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1년 반이 넘도록 강대국 러시아에 항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식량비축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냉전시대에는 분쟁의 핵심 축이 대서양에서 한반도 주변 태평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반도로 오는 곡물 수송선의 항로가 봉쇄될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 유일의 휴전 중인 분단국으로 예기치 않은 전쟁이나 통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식량안보 의식은 너무나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10여 년 전부터 공공비축미에 더하여 통일을 대비한 통일미 120만톤을 항시 비축할 것과 북한 주민의 식량 지원을 위해 남한에서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식량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식량부족 상태에 빠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전체 식량에너지 자급률이 35%인 상황에서 식품산업이 모자라는 식량을 세계시장에서 구입하여 공급하므로 식품산업의 식량안보기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는 식량 생산을 주관하는 일개 부처의 소관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식량안보를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협업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연구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특별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안’이 2023년 6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법안소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 권력 쟁탈에 눈이 멀어 국민이 먹고 사는 일에는 관심도 없는 우리 국회의 민낯이다. 일본 의회는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기존의 농업기본법을 보완 강화했으며, 금년 6월에는 ‘식량공급곤란사태 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금년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도 최근 식량안보법을 개정 보완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인 한국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가짜뉴스와 범죄자들의 선전 선동으로 뒤범벅된 정치쇼에 현혹되어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7년의 풍년에 뒤이은 7년의 흉년을 예언하고 미리 준비하여 이집트를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식량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만민이 평등하게 산다는 꿈같은 허위 선전으로 공산주의 실험을 감행한 소련연방도 2차대전 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천만 인민을 굶어 죽게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볼 때 국내·외에서 식량위기의 먹구름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비교적 안정되고 부유한 현 시점에 우리가 식량을 충분히 비축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무서운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식량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급되는 식량의 1/3을 먹지 않고 쓰레기로 버리는 낭비 습관을 고쳐야 한다. 국민 각자가 식량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가정마다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양분된 국론을 나라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일에 온 국민이 슬기를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다. 하나님은 결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국민이 바른 자세로 이 나라와 내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